이웃 종교 RELIGION

칼뱅탄생 500주년 '장로교의 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7개 한국 장로교단 참여 대규모 집회

2009년은 종교개혁가 장 칼뱅(1509~1564)이 탄생한지 5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장로교회의 창설자이기도 한 칼뱅의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내 개신교 단체에서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다.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는 6월 21~22일 대치동 서울 교회에서 '칼빈과 한국교회'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 및 기념음악회를 열었다. 또한 칼뱅의 생일인 7월 10일은 '한국 장로교의 날'로 선포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7개 한국 장로교단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된다.

하지만 기념사업회가 지난 4월 서울교회 인근 대치동 삼성로 서 73길을 명예도로 '칼빈길'로 추진하고 있어 불교계와 개신교계


장 칼뱅.

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 있다.

이같이 칼뱅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많을 정도로 칼뱅의 탄생은 개신교인들에게는 의미가 크다.

칼뱅은 훗날 칼뱅주의라고 불리는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중세의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 독일에서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고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을 당시 프랑스 북부 지방 출신의 칼뱅은 1523~1528년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1536년 복음주의의 고전이 된 <그리스도교 강요>를 저술한다.

칼뱅은 자기의 직업에 근면, 성실하게 종사할 것을 강조, 이는 중산 시민 계층에게 받아들여져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됐다. 이러한 칼뱅 교도를 영국에서는 청교도,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이라고 불렀다.

이나은 기자

국제 카리타스 대북소위 성명서 발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지원 계속돼야"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북한 정권 후계자,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 등에 쏠려 있다. 자연히 기본적 욕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목소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톨릭 교회의 공식 원조 기구인 국제카리타스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카리타스 네트워크 회원국들은 6월 14~16일 중국 베이징에서 대북 지원 특별 소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요지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북한 핵 실험 등으로 동북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데 주목한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회원국들은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의 비핵화는 평화적인 개발과 발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경제위기 시대에 빈곤의 극복을 위해서는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 개발에 대한 투자가 철회돼야 한다" 강조했다. 국제카리타스 레슬리 사무총장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국제 카리타스의 주요 의제로 상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한국 가톨릭 신자 500만 넘어

국내 가톨릭 신자가 500만 4115명으로 집계됐다.

한국 천주교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주교)가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08>을 2009년 5월 30일자로 발행했다.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이번 통계자료에 따르면, 1784년 한국천주교회가 시작된 이래 225년 만에 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대비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 5039만 4374명 (통계청 자료)의 9.9%로 10명 중 1명이 신자인 셈이다. 전년도 487만 3447명에 비해 13만 명이 늘었고 2.7%의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직자는 모두 4204명으로 나타났으며 추기경과 대주교, 주교는 모두 31명으로 집계됐다.

이나은 기자

저출산 극복, 불교계가 나선다

법회자료집 3000부 전국 사찰 및 교계 기관 배포

우리나라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19명. 홍콩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낮은 '초저출산' 국가다. 현재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여성 1인당 2.1명을 낳아야 하는데, 절반 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100년 뒤 한국인구가 1500만 명으로 줄 것이라고 경고가 나올 정도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와 맞물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도 6월 9일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출범, 6월 30일 사회각계 및 지자체가 적극 동참해 16개 시 · 도별로 지역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 이하 복지재단)이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저출산 극복문제 해결에 앞장 서 눈길을 끌고 있다.

복지재단은 6월 30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회자료집 개발발표회'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복지재단은 불교계 최초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의 지원을 받아 여러 전문가들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법회 현장과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출산 인식개선 기본교육 교재인 <아기탄생과 양육, 세상을 희망으로 바꾸다!>를 발간했다.



6월 30일 열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회자료집 개발 발표회'에서 발제하는 이동권 국장.

발표에 앞선 인사말에서 대오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정관 스님(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생명의 존엄성을 널리 알려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발표회는 △이용권 사무국장(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저출산 사회의 미래와 법회자료집 개발 의의' △오지연 강사(동국대)의 '아기의 탄생은 부처의 탄생-불교의 출산관 △이영호 센터장(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 · 이웃과 함께하는 출산과 양육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용권 국장은 발제에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은 일선 법회 등 주관 스님들과 포교사 · 교계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교에서는 이들이 법회 현장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저출산 · 고령화 극복을 위한 불교계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지연 강사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낙태와 입양에 주목해야한다"며 "태아는 수태 순간부터 독립적이고 주체적 존재이며 나아가 아기를 갖는 행위는 곧 또 하나의 깨달은 자, 부처를 잉태하는 것"이라고 낙태를 막아야함을 역설했다.

이영호 팀장은 "가족의 힘이 사회자본이 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족이 많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에서 양육을 하는 기간 동안 가족 및 아버지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재단은 이번에 법회자료집 3000부를 발행해 전국 사찰 및 교계 기관 · 단체에 배포해 법회 · 신도교육 시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리고 출산을 장려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청소년수련관 '풋살' 장 개장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혜)는 6월 26일 수성구청소년수련관 내에 '풋살'장을 개장했다.

개장식은 부설기관인 수성구청소년수련관(관장 무문)에서 회원사찰 스님 10여 명과 구청관련 인사, 연합회 신도회(회장 임문우), 수련관 관계자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에 앞서 연합회 소임 스님들은 "건강한 심신이 함께하는 도량의 스포츠장으로 거듭가꾸어 나가길 바란다"며 발원했다. (053)761-9400

손법천 대구지사장

동국대 불교회 의료봉사활동

경주시 복지회관서 200여 지역주민 참여

동국대 경주병원 불교회(회장 강석, 지도법사 무구)는 6월 27일 경주시 내남면 복지회관에서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내과 정형외과 안과 등 7개 진료과와 50여 교직원이 지역주민 200여 명의 건강을 살폈다.

초음파기와 안과 검사장비 등 고가의 의료장비 등을 이용한 전문적인 검사와 왕래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차량을 이용해 직접 모셔다 드리는 편의도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동국대 경주병원 불교회는


동대 경주병원불교회 의료봉사 장면.

지역민들을 위한 정기적인 무료 의료봉사활동은 물론 수년간 해외 무료진료를 실시해 왔다. 올해는 7월 6~11일까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승가원장애아동시설 개선사업 '첫 삽'



6월 29일 승가원에서 시작된 '2009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승가원장애아동시설(관장 동옥) 어린이들이 올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

정유업계(대한석유협회,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 오일뱅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6월 29일 승가원장애아동시설에서 '2009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첫 삽을 떴다.

승가원장애아동시설의 시공을 첫 시작으로 정유업계와 사회복지공동모금기금회는 7월부터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심사 · 선정, 10월 말 까지 노후 보일러 및 배관 교체, 단열재 공사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저소득 일자리 제공 본동복지관서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2009년도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구인개척' 사업에 선정된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이 저소득취약계층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제공에 나선다.

이에 복지관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대해 "현재 경제상황 및 저소득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구인업체 및 빈 일자리를 개발해 연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02)817-8052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1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7월 9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7월 10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
- 전 통 활 락 법 : 최상의 에너지인 수중화(물 속의 불)로 전신에 경락을 일거에 타통한다.
- 체 절 조 절 법 : 모든 난치병의 뿌리는 뇌에 있다. 체절 조절로 뇌를 다스려 난치병 근치의 신기원을 이룸.
- 전신골격 조정법 :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접촉하여 참나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5분 이내에 뒤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다.
- 전생업장소멸법 : 뇌하수체에 훈습된 아뢰야식의 전생업장을 천연에너지로 강렬하게 태운다.

자동 운기법! 자동 축기법!
수행의 최고 경지는 의념이 배제된 채 저절로 운기와 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인의 경지에 바로 진입한다.

운명의 공식! 개운의 법칙!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 자타의 운명을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혜안이 열린다. 사업, 취업, 결혼, 부동산매매, 주식거래, 각종 시험 등등 인생 제만사의 각종 문제들을 미리 조정하는 능력자가 된다.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 천도법!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천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최강의 양택 발복법!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수 천년 동안 어렴풋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무료체험신청하세요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